

# 충청도 절터에 분별 여원 원융 정신 흐르네



**나와 같고 옳고, 다르면 그른 것인가**  
이지누 지음  
일마 펴냄  
2만2천원

전라남도의 절터는 아담하고 소박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렇다면 충청도 절터는 어떨까? 책 제목을 보면 단박에 짐작할 수 있다. '나와 같고 옳고, 다르면 그른 것인가' 다. 선의 기풍이 물씬 풍기는 경우 같다. 맞다. 실제로 선어록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는 낭해 화상(801-888)이 한 말이다. 보령 성주사터에 주석한 이 스님은 선종과 교종을 두루 아우르는 당대의 선지식이였다. 북종선 계열인 능가선부터 시작해, 화엄도량인 부석사에 가서 머물고, 당나라로 건너가 남종선 계열인 마조선까지 섭렵했다. 즉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의 교종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선종의 여러 갈래를 넘나든 것이다. 더구나 낭해화상은 불문에 들어서기 전에는 유가의 경전을 읽기까지 했으니, "진주를 얻고 불을 피웠으면 조개와 부식물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수행 태도였다.

더구나 고려 당시에는 교종을 통치사상으로 내세운 중앙정부가 지방의 선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충청도 지역에 화엄사찰들을 여럿 세우기도 했으니, 그 만남과 통합 과정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죽산-충주 국도변에 산재한 고려 전기 양식의 거대한 석불입상들이 고려 중앙정부(교종)와 호족세력들(선종)의 과시적 합작품이라면, 고려 양식과 통일신라 양식이 조화롭게 녹아 있는 서산 보원사터의 탁월한 5층석탑은 그 통합의 예술적 극치다.



보물 제104호인 보원사터 5층석탑

특히 보원사터는 고려 제 4대왕인 광종의 충청도 폐사지 교통요지인 강에 위치 여러종파들 절 짓고 서로 공존 보원사탑...고려·통일신라 양식 조화

영향이 직접 미친 절집중 폐사로 남은 두 곳 중 하나다. 보원사는 화엄사찰이다. 얼핏보면 위치한 곳이 산골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보원사터 산중으로 길이 많이 생겨나 수덕사나 개심사 쪽으로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 닦은 길이 아니다. 예로부터 오가던 길이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못된길 길을 다시 찾아낸 것이다.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과 마주칠 때 대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겸손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기존 생각을 모순 없이 통합해 더욱 완전한 모습에 이르러간다. 이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경지, 곧 깨달음의 경지다.

충청도 절터들에는 이와 같은 사상과 통찰이 면면히 깔려 있다. 이들 절터의 흔적을 찬찬히 더듬어보으로써 불교의 역사와 문화 및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오늘날 한국의 이념 대립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요 축인 사진은 절터 현장을 매우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멋이나 장식, 기교 등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현장을 담았다. 이는 디지털 기술로 사진을 예쁘게 보정하는 경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실제 그대로를 찍어도 얼마든지 품격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한껏 한컷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사진을 수십 번의 답사를 통해 얻어냈다. 그야말로 '발로 찍은' 다

큐멘터리 사진의 진수다. 자연의 햇빛을 통해 담아낸 절터 현상의 색감과 질감은 독자의 시각과 촉각을 즐겁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에서는 청각과 후각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저자는 제천 월광사터에서 "마른 낙엽 위로 또다른 낙엽이 떨어져서 서로 부딪는 소리"에 주목하며, 그 "가을 햇살처럼 투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탐미적인 청각의 향연 뒤에는 이를 관음 또는 관정사상과 연결시키며 감성의 깊이를 그윽하게 더한다. 또한 당진 안국사터에서는 "잎들 마르면서 나는 향기가 새벽의 녹진한 공기에 묻혀서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고 절터에 가득 차 있었다"며 후각적 즐거움에 흠뻑 젖는다. 이곳에서 역시 안국사터의 매향 및 불교사상을 고려해 "들머리가 하얀한 향을 기뻐하며 온 산의 나무들이 자신의 몸을 흔들며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향기를 내뿜는 것만 같았다"며 감성과 지성이 어우러진 표현을 일깨운다.

이처럼 저자는 책 곳곳에서 화려한 감각의 향연을 펼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탐미적 경향은 타락이나 파괴로 흐르지 않고, 찬탄이나 경건함으로 이어진다. 그것이야말로 절터의 풍경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의 정제라고 저자는 말하는 듯하다.

저자 이지누씨는 "충청도 폐사지들 중 강강 유역에 존재한 사찰은 월광사, 사자빈신사, 미륵대원사, 청룡사, 개심사이며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은 성주사와 안국사다. 그리고 산중 교통 요지의 사찰은 승선사와 보원사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처럼 충청도의 폐사지들은 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ыл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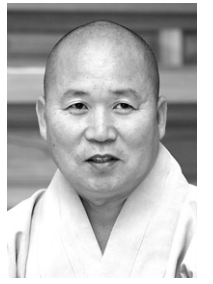
# “비우고 놓고 낮추세요. 그래도 큰일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목해자 지음 | 아침단행 펴냄 | 1만4천원



가야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108산사순례를 이끌고 있는 선목해자 스님이 인생 잠언집을 펴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는 습관 때문이라는 해안이 담겨 있다. 비우고, 놓고, 낮추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강렬한 깨달음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잔잔한 감동을 남긴다.



문한다. “무엇을 그리 꼭 움켜쥐고 있는 나?”고. 그것은 자신의 행보를 회상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선목해자 스님은 이제 비우고 놓아서 편안해지라고 말한다. 비우고 놓아도 절대 큰 일나지 않는다고 용기를 준다.

선목해자 스님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대신 놓아보십시오. 채우는 대신 비워보십시오. 남보다 나를 낮은 자리에 두어보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교화와 성당을 다니던 할머니와 어머니를 두고, 절이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이자 위로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 버려 아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두 손에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어 그것을 지키려니 손도 아프고, 정신도 피폐해진다는게 해자 스님의 생각이야. 선목해자 스님은 그러이들에게 반

이 책에는 교화와 성당을 다니던 할머니와 어머니를 두고, 절이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이자 위로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 버려 아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두 손에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어 그것을 지키려니 손도 아프고, 정신도 피폐해진다는게 해자 스님의 생각이야.

김주ыл 기자

# 현실적 예화 가득한 마음수행 지침서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지음 | 용화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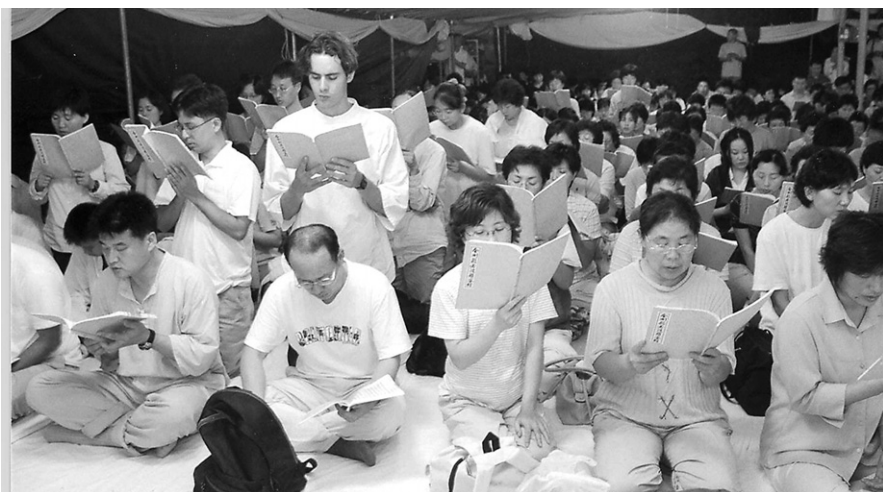
1989년 첫 발간 후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로 마음 뒤는 이들에게 수행 지침서가 된 이 책이 24년만에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최근 법문들이 수록돼 있으며, 법문중 나오는 불교용어도 쉽게 책 말미에 풀이해 놓았다.

이 책에 담긴 법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 지향적이다. 가령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강할때는 자유이다' 편에 보면 저자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절단 사람 앞

에서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울 마음을 내고 먼저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질 일도 창피할 일도 없다'고 행동지침을 자세히 일러준다.

또한 사업 경영,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원만한 인간 관계 등과 관련된 일상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책에서 이 책은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330개의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문들은 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현실적 문제들이어서 머리말에 두고 언제든 지 문제가 생기면 꺼내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구성했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다. 이 책이 꾸준히 사랑받는 큰 이유다. 특히 업의 작용에 대한 폭넓은 설명과 함께 어떤 특정한 행동이 그 과보로 다음 생애 어떤 몸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에서는 많은 정신적 감화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에 실린 '생활속의 가르침'과 '나

라사랑 실천' 등 두 편의 글은 김재웅 법사의 제자들이 정리한 글로 저자의 가르침과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마음공부를 주로 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행단체 중 하나인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됐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정우불교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국

내외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는 포항 금강정사다.

독송회는 매주·월장·참기름을 생산하고 농사는 물론, 옷가게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한다. 이들은 절약을 생활화해 매년 1천만 원 이상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15년째 기부하고 있으며 미국 각 지부는 김치와 만두를 만들어 판 수익금을 행사비용에 보태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강경독송회는 금강경 50여 만 권과 문화관련 책자 70만 권을 출판하고 각종 행사를 펼치며 한국문화알리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금강경독송회가 한국 알리기를 시작한 동기는 김재웅 법사가 미국 법회때마다 재미교포들이 인종 차별과 폭력에 주눅들어서 사는 것을 보고난 후 부터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뛰어난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8종의 책자 68만9천900권을 인쇄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은 한국

어, 영어, 독일, 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6개 언어로 제작했고, 또한 원화대사도 영어로 제작했다. 이 책들은 서울에 주재하는 80개의 각국 대사관 등에 보냈다. 국제행사나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2010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이 책들이 국빈을 위한 공식 선물로 채택돼 총 3천권이 보내졌다.

2005년 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작된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영상을 보여주는 행사로 확대됐다. 석굴암, 사리암, 대장경, 한글 등 세계 정상의 문화재 영상 9종과, IT, 조선, 건설 영상 등 현대물 6종까지 총 15종의 영상을 한국어, 영어, 독일, 불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어 7개 언어로 제작해 행사 때 상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미국, 유럽,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총 1천300 회의 상영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김주ыл 기자

##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물이 용봉

호신진언【옴치림】

돼지띠삼재해당자, 토끼띠삼재해당자, 양띠삼재해당자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청담아트월드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 구입하십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since 1980

**김운경 승복**

승복·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형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 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 들의 수행과 수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운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형단체 단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직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공장직영 도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충청매점지점센터 801호, 903호 7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운경)

E-mail : kyksb58@naver.com

## 선현사 부설 제1기 용천불교대학 작법반 학인 모집

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강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강료 : 3개월 30만원

● 연락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현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